반도체 · 디스플레이 한국투자 러시

Asahi Glass LCD용 유리에 Schott은 LCD 유리기관 ... 반도체도 활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2006년 들어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R&D) 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조공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에이에스엠지니텍은 2006년부터 10년간 1400여억원을 국내에 투자해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R&D센터도 대폭 늘려 한국공장이 향후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유리 제조기업인 일본의 Asahi Glass는 2006년 안으로 경북 구미 국가4단지 1만8000평 부지에 PDP(Plasma Display Panel)용 유리 제조공장을 착공한다.

특히, Asahi Glass는 합작투자였던 과거 CRT(브라운관)와 LCD(액정화면)용 유리 제조공장 건설 때와는 달리 1억달러 상당을 단독 투자키로 했다.

세계 4대 유리 제조기업으로 손꼽히는 독일 쇼트(Schott)도 이미 일본기업과 합작 형태로 1단계(1억1500만 달러) 투자에 나서 현재 충북 오창에 LCD 유리기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의 포토마스크 메이커인 포트로닉스는 한국법인 PKL을 통해 3억달러를 투자, 포토마스크 공장을 신설키로 한데 이어 본사 R&D센터도 국내로 옮겨 LCD · 반도체용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총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순 충남 아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프랑스 알카텔그룹 계열 알카텔진공코리아도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정용 진공장비 생산에 나선다.

이밖에 반도체기업인 페어차일드반도체가 2006년 초 휴대폰 · 디스플레이 전담 디자인센터를 열었으며,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AMD는 2005년 말 대치동에 AMD 한국기술개발센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30>